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번역현황과 분석: 1945-2009

유재진*, 나카무라 시즈요**, 김영란**,
오해성**, 이주희**, 이진희**, 민건우**
jaejin@korea.ac.kr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각 시대별 번역현황과 분석
2.1. 1960년대-4월 혁명과 일본 추리소설의 번역출판
2.2. 1970년대-유신체제와 추리소설 붐
2.3. 1980년대
2.3.1. 대형서점의 등장과 사회고발소설의 인기
2.3.2. 1960~80년대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인기와 그 원인
2.4. 1990년대-대중소비사회와 아카가와 지로(赤川次郎)
2.5. 2000년대-스타급 작가의 등장과 출판사간의 경쟁출판
Ⅲ. 나오며

Abstract

韓国における日本推理小説の受容に関する研究は過去にもなされてきたが、その多くはただ批評の段階に止まっているか、外国推理小説の一部として紹介されたものにすぎなかった。戦後、政治的激変の時代から民主化の時代を経て、現代に至るまでミステリーといわれる「大衆ジャンル」はどのように受容されてきたのか。本研究では日本文学のなかでも「ミステリー小説」が韓国内でいつから、どのような規模で、どんな作家の作品が、どのように受容されてきたのかについて、時代的背景、出版界の動向などを中心にし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韓国内での推理小説の受容は、日本のものから始ま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植民地時代には、日本推理小説が直接日本語で受容されたり、その原点ともいえる黒岩涙香の作品が再翻案されたりした。終戦後は、李承晩政権により日本書籍の翻訳及び出版が抑圧されていたため、1960年までは日本文学の出版が行われていなかった。その後、1960年の４月革命を皮切りに日本文学全集類が刊行されはじめた。それと同時に、日本推理小説もその全集類に収録され、韓国の読者らに紹介された。1970年代は朴政権の維新体制下で、松本清張、森村誠一のような社会派推理小説が流行し多く出版された。また世界推理文学の全集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과정.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類刊行の流行に伴い日本推理小説の出版も盛んになった。このブームは1980年代に引き継がれ全盛期を迎るようになる。権威主義で象徴される第５共和国に政権が変わると、社会告発小説が流行り、その影響で日本の社会派推理小説の受容も幅広く行われた。その後、「大衆消費時代」と言われる1990年代になると、以前の社会派推理物に代わって赤川次郎や夢枕獏らが人気を得始めた。また、1990年代には貸本屋の増加により、日本ミステリー小説の読者層も大きく拡大した。2000年代に入り東野圭吾に代表される大流行作家の登場により、以前に比べ急激にその出版量も増えたのであり、またそれまで注目されなかった作家にまでその範囲が広まり、日本ミステリー小説界における多数の作家が韓国に紹介された。

以上、戦後から2009年までの受容史を分析することにより、日本ミステリー小説は植民地時代から戦後を経て、その後も持続的に受容されてきたことがわかった。又その受容の背景において、韓国の政治・経済・社会における状況と共に、韓国出版界の状況が密接に結び付いていることなどを確かめた。

Key Words : 日本文学、推理小説、ミステリー、翻訳、出版
Japanese Literature, Detective Novel, Mystery, Translation, Publishing

Ⅰ. 들어가며

한국 추리소설의 효시라 불리는『쌍옥적』(1908)[1]이 등장한 이래로 한국 추리소설사를 바라볼 때 “장르의 도입에서 시작하여 안정적인 독자층을 형성하는 데까지 번역・번안소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크다”[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쌍옥적』이후[3] 김내성의『마인』(1939)[4]이 등장할 때까지 한국 추리소설계의 주류를 이룬 것은 창작물보다 번안번역물이었다. 해방 후에는 방인근, 허문

1)『쌍옥적』은 1908년 12월 4일부터 1909년 2월 12일까지『제국신문』에 연재되었다가 1911년 보급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 이주라(2011)「번역・번안 추리소설의 수용과 취향의 분화」대중서사장르연구회『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3 추리물』이론과 실천(이하『대중서사』로 함), p.173.

3)『쌍옥적』이후 1920년까지 창작 추리소설은「조선일보」에 개재된『박쥐우산』(1920)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가보리오(Etienne Èmile Gaboriau) 및 보아고베(Fortuné du Boisgobey) 등의 프랑스 추리소설이 많이 번안되었다. 이후 방정환에 의해 창작된 소년탐정소설이 1925년부터 1930년까지 아동잡지 ≪어린이≫에 ‘북극성’이란 필명으로 연재된 것이 눈에 띈다. 김지영(2011)「‘탐정’・‘기괴’개념을 통해 본 탐정소설의 형성과정」『대중서사』, p.225, 조은숙(2011)「소년소설의 형성과 탐정소설」『대중서사』, p.173.

4)『마인』은 “1939.2.14~1939.10.11, ‘조선일보’에 171회에 걸쳐 연재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로 “1939년 12월에 조광사에서 단행본으로 초판이 간행되어 5년 만에 18판을 간행” 하였다. 김내성 지음, 민병덕 엮음(2009)『마인』정암미디어, p.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영 등[5]과 더불어 1970년대에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성종[6]의 등장으로 꾸준히 추리소설의 창작이 이루어져 왔으나 추리소설계의 중심은 여전히 번역물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출판된 추리소설 전집류의 대부분이 영미 및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품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7] 즉 한국의 추리소설사의 대부분은 추리소설 번안번역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현재진행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추리문학과 그 번역사를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의 추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추리소설 수용이 일본 식민지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도 일본에서 쓰이던 「탐정소설」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1910년대 많은 외국 추리소설이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의 번안 작품을 재번안함으써 소개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를 부연해준다.[8] 일본의 추리소설은 '일본문학 번역의 공백기'[9]인 식민지 시대를 거쳐 1961년이 되어서야 처음 정식으로 국내에 번역되어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후 많은 일본 추리소설이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각 연대별 추이는 <그래프1>과 같다.

---

5) 해방 후에는 1950년대 방인근의 「장비호 탐정 시리즈」, 1960년대 허문영의 「번개 탐정 시리즈」가 인기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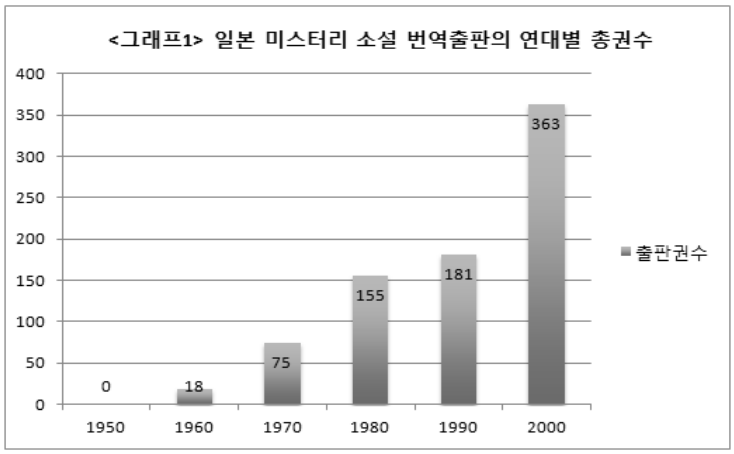
6) 김성종은 19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공모에 『최후의 증인』이 당선됨으로써 한국 추리소설 문단에 등장하였다. 이는 "추리문학을 특별히 겨냥하지 않은 대규모의 작품 공모에서 주목받은 소설이라는 점에서 한국추리문학의 의미심장한 결실로 간주된다." 최애영(2011) 「유신체제하의 자기검열과 균열의 징후」『대중서사』, p.469.

7) 1970년대에는 하서출판사의 「하서추리신서」, 삼중당의 「삼중당미스터리명작」, 동서문화사의 「동서추리문고」등 많은 추리소설 전집류가 출판되었다. 80년대는 해문출판사의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이 눈에 띄며 90년대는 고전에서 현대추리소설까지 아우르는 고려원의 「고려원 미스터리」, 시공사의 「시그마 북스」가 있다. 2000년대는 시공사의 「셜록 홈즈 전집」(정태원역), 황금가지의 「밀리언셀러클럽」, 까치글방의 「아르센 뤼팽 전집」(성귀수역), 열린책들의 「매그레 시리즈」등이 있다. 박광규(2010) 「추리소설 번역의 역사」『한국번역비평학회 2011년도 동계심포지움 학술대회논문집』 한국번역비평학회, pp.28-33.

8) 예를 들면 『누구의 죄』(보급서관, 1913)는 구로이와 루이코의 번안작 『사람인가 귀신인가(人耶鬼耶)』(1888)를 재번안한 작품으로, 『사람인가 귀신인가』는 가보리오의 작품『르루주 사건(L'Affaire Lerouge)』(1863)을 번안한 것이었다. 김지영(2011), 앞의 책, p.248.

9) "식민지 치하가 된 1910년 이후 일본문학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상품으로 유통된 예는 극히 드물다. 단 두 사례만이 떠올려질 뿐이다.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의 소설 『불여귀(不如帰)』(1898)를 1912년 조중한이 번역한 『불여귀(不如帰)』와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종군기 『보리와 병정(麦と兵隊)』(1938)을 같은 해 7월 조선총독부 통역 및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真太郎)가 번역한 보리와 병정(兵丁)(1938)이 그것이다." 윤상인(2008) 「한국인에게 일본문학은 무엇인가」윤상인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1945-2005』 소명출판, pp.9-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래프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추리소설이 1960년대에 소개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이나 영미국가에 비해 추리소설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이 꾸준히 일본 추리소설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추리소설의 수용사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소위 일본의 순문학에 관한 연구에 비해 일본 추리소설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그 연구가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한국 추리소설 장르의 형성에 관한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10] 물론 김봉석(2011)[11]이나 박광규(2010) 등의 일본 추리소설 수용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단지 비평의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외국 추리소설 수용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있을 뿐이다. 추리소설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시대에 미국 및 유럽의 추리소설에 비해 일본의 추리소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본문학 중에서도

10) 식민지 시대의 한국 추리소설의 장르형성과정과 외국 추리소설의 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로 다음이 있다.
박진영(2009)「천리구 김동성과 셜록 홈즈 번역의 역사」『상허학보』제27집, 상허학회, pp.277-317.
이주라(2011)「번역·번안 추리소설의 수용과 취향의 분화」『대중서사』, pp.172-197.
최애순(2010)「식민지시기 탐정소설의 번역과 수용 양상 및 장편 번역 탐정소설 서지연구」『현대소설연구』제4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pp.481-524.
11) 김봉석(2011)「일본 추리소설의 수용과 한국 추리소설의 현황」『대중서사』, pp.587-6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미스터리 소설에 대한 국내수용도가 점점 높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밝히는 선행논문이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해방이후 2009년까지 출판된 일본문학 중에서도 미스터리 소설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 및 분석은 1960년대, 70년대의 식으로 10년 단위씩 나누어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연대별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이 어떻게 국내에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왜 인기를 누렸는지 등의 제반사항을 밝혀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 중에서도 미스터리 소설이 담당했던 기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자료는 1945년부터 2005년까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1945-2005』(윤상인외, 소명출판, 2008)의 서지목록을, 그리고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현황을 보기위해『한국출판연감』(대한출판문화협회, 2007-2010)을 활용하였다.[12] 전자의 경우 출판권수가 아닌 종수로 되어 있었으나 전집이나 선집의 경우 작가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한 권이 여러 종수로 변하는 등 그 현황을 명확히 보일 수 없다는 판단에 전부 권수로 바꾸어 리스트를 작성하였다.[13] 그리고 중복출판을 비롯하여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 및 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충하였다.[14]

---

12) 윤상인(2008)에 앞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문학을 포함한 외국문학의 서지목록을 작성한 연구로 김병철의『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전2권, 을유문화사, 1998)가 있다. 그리고 윤상인(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문학 중 소설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리고 2007년까지 범위를 넓혀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를 한 것으로 문연주의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문연주(2008)「일본소설의 국내 번역 출판 현황과 특성에 대한 통사적 고찰」『한국출판학연구』제54집, 한국출판학회, pp.190-216.

13) 종수라는 표현은『한국출판연감』을 비롯하여 윤상인(2008), 문연주(2008) 등의 논문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로 출판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쓰이고 있다. 단 이 용어가 정확히 어떠한 정의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명시된 경우는 없었다. 윤상인(2008)을 예로 들면 단편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이 9작품일 경우 9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문연주(2008)의 경우, 2005년까지는 윤상인(2008)의 서지목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윤상인(2008)의 종수 개념을 따르고 있으나 2006년부터는『한국출판연감』의 서지목록을 취하고 있으므로 단편 소설집도 한 종으로 취급되어 있다. 위와 같이 종수라 하더라도 논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종수가 아닌 권수를 출판현황의 지표로 삼기로 하였다. 단편 소설집은 한 권으로 산정하였고 중복 출판이나 증쇄판인 경우도 다른 권으로 산정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한 작품이 여러 권으로 나뉘어 출판된 경우나 시리즈물도 각각의 권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마지막으로 탐정소설, 추리소설 및 미스터리 소설 등의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겠다.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탐정소설'이라는 용어가 쓰였으나 전후 상용한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偵)'자가 상용한자에서 빠지면서 '추리소설(推理小說)'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15] 그 후 일본의 추리소설은 SF, 호러, 환타지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시키는 진전을 이루게 되어 이전보다 넓은 범주의 의미를 지닌 '미스터리 소설'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합당하게 되었다.[16] 한국의 경우 처음에는 '탐정소설' 및 '정탐소설'이라는 용어가 쓰였으나 해방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았고 외국 추리소설의 부단한 실험적 수용의 결과 그 명칭을 '추리소설'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다.[17] 본 연구에서는 근래에 번역 출판되는 일본 추리소설을 비롯하여 다른 주변 장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미스터리 소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1960~80년대의 경우와 같이 '추리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시의 시대상을 미루어 보았을 때 더욱 합당한 경우나 그 용어의 사용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용하기로 하였다.

---

14) 윤상인(2008)에 누락된 예로, 이가형 번역의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乱歩)작 「D언덕의 살인사건」이 포함된 『세계추리명작선』(한국미스터리클럽편역, 박영사, 1974)이 있다. 그리고 삼한문화사의 『대남(大男)』(총10권, 문호역, 1976)을 중복출판한 『인간소설 대남』(총10권, 양우당, 1978) 등의 예가 있다.

15) 박유희(2011) 「한국 추리서사 논의를 위한 전제」『대중서사』, p.20.

16) 추리소설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용어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점점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추리소설의 주변 장르였던 SF나 호러가 점점 인기를 얻고 활성화되어 갔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스터리'라는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SF나 호러는 '미스터리 소설'의 주변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일본추리작가협회 홈페이지의 "미스터리의 정의도 소위 본격적인 탐정소설, 추리소설에서 하드보일드, 모험, 서스펜스, SF, 호러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넓혀지고 있다(ミステリーそのものの定義も、いわゆる本格的な探偵小説、推理小説からハードボイルド、冒険、サスペンス、ＳＦ、ホラーと、際限もなく広がりつつあります)"와 같은 발언에서 쉽게 확인된다. 실제로 동협회가 주관하는 일본추리작가협회상은 트릭풀이가 중심을 이루는 추리물 뿐만 아니라 SF물인 고마쓰 사쿄(小松左京)작 『일본침몰』(제27회수상, ,光文社, 1973)에도 수여되었다. http://www.mystery.or.jp/riji/index.html (검색일: 2012년 2월 8일)

17) 이정옥(2001) 「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분석」『현대문학이론연구』제1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p.19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각 시대별 번역현황과 분석

2.1. 1960년대-4월 혁명과 일본 추리소설의 번역출판

일본추리소설의 번역 및 출판은 1961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광복이 1945년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더디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광복이 된 이후에도 지식인들 대부분이 여전히 일본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번역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원인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이승만 정권의 강경일변도의 배일감정이 일본서적의 출판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18] 그리하여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월 혁명으로 붕괴되자 급격히 일본의 소설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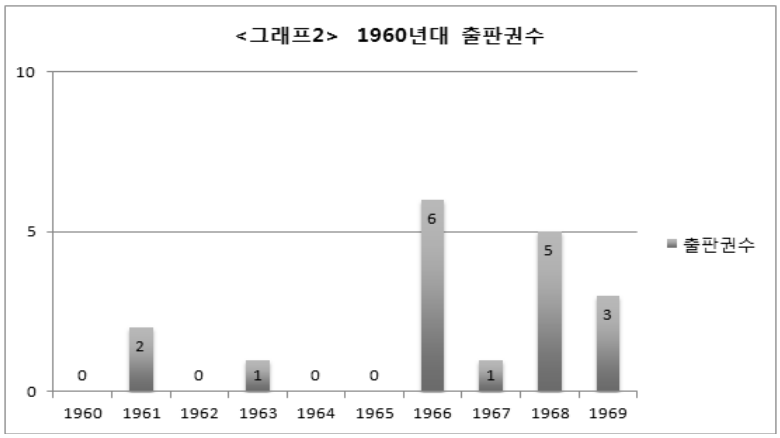
1960년대 출판된 일본 추리소설의 총수는 18권으로 연도별 추이는 <그래프2>와 같다. <그래프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60년도에는 일본 추리소설의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61년도에 처음으로 2권이 출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2권은 니키 에쓰코(仁木悦子)의 『고양이는 알고 있다』(허문영역, 진문출판사)와 마쓰모토 세이초의 『제로의 초점』(이규식역, 자유사)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하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을 시점으로 출판권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8) 이승만의 대일외교는 기본적으로 배일감정과 적대적 정서의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의 강경일변도의 배일감정은 일명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평화선의 선포(1951.1)로 대표된다. 홍순호(1999) 「이승만정권의 대일정책과 재일동포 북송문제」『북한연구』제2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p.2.

19) 최원식은 『4월혁명과 한국문학』의 머리말에서 김대중 정부의 출현이 일본대중문화의 해금을 불러왔다면 이승만 독재의 붕괴가 일본문학의 해금을 불러왔다고 말하고 있다. 최원식·임규찬(2002)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pp.10-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60년도에 출판된 18권중, 7권이 전집 및 선집류였다.[20] 전집 및 선집과 같은 기획출판은 당시 출판계의 유행[21]으로써 일본문학의 출판도 그 경향을 따르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획출판의 대상은 주로 동시대의 일본 순문학작가에 편향되어 있었으며 신구문화사의 『일본전후문제작품집』(1960)과 청운사의 『일본문학전집』(1960)을 시작으로 그 후 많은 전집류의 중복출판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일본의 추리소설 또한 일본문학 전집류에 포함되어 소개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966년에 간행된 희망출판사의 『일본대표작가백인집』은 추리소설 작가인 에도가와 란포, 마쓰모토 세이초, 쓰치야 다카오(土屋隆夫), 사노 요우(佐野洋), 구로이와 주고(黒岩重吾)의 작품을 싣고 있다. 이 시기 마쓰모토 세이초의 번역물이 대부분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을 예외로 볼 때 많은 추리소설 작가가 전집류로 소개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22]

그리고 전술한 무분별한 중복출판도 1960년도의 출판경향을 말할 때 간과할

20) 전집류에 이외의 단행본으로는 마쓰모토 세이초가 7권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乱歩)의 『괴도 스물이』(소년탐정시리이즈1, 손민역, 장우사, 1968)와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의 『여인의 사탑』(안동민・이영작역, 문학춘추사, 1966), 그리고 리 요리치카(有馬頼義)의 『밀실』(문영역, 금우각, 1968)이 있다.

21) 전집출판과 같은 기획출판은 1959년부터 성행했던 것으로 을유문화사(전100권의 기획으로 간행시작), 정음사(전50권), 동아출판사(전20권)의 『세계문학전집』등이 1959년도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1987) 『대한출판문화협회40년사』 대한출판문화협회, p.120.

22) 마쓰모토 세이초의 『어느 고꾸라 일기전』은 『일본개천상(芥川賞)소설집』(세계수상소설선집 1, 이원수역, 신구문화사, 1963)으로 그리고 『1년 반 기다려주세요』는 희망출판사의 『일본대표작가백인집』(표문태역, 1966)으로 소개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희망출판사의 『일본대표작가백인집』(1966)은 그 후 신태양사로부터 『일본단편문학전집』(1969)으로 제목만 바뀐 채 그대로 다시 출간되었다. 이러한 중복출판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으며 1970, 80년도에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복출판의 문제점은 1987년 10월 한국이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2 1970년대-유신체제와 추리소설 붐

1970년대의 경우 그 총수는 75권으로 60년대에 비해 그 수에 있어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중 전집류는 26권이나 이 중 3권이 세계추리문학의 전집이며 20권이 마쓰모토 세이초의 작품집인 것을 고려할 때 1960년대의 출판 경향과는 크게 성격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3] 또한 대부분의 작품이 문고 및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그래프3>과 같이 1970, 71년의 경우 일본추리소설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976년과 1978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위 작가 5명의 작품권수를 <표1>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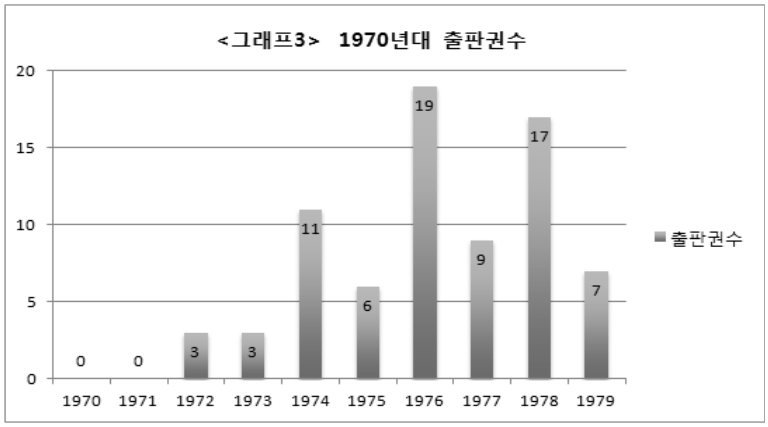
먼저 마쓰모토 세이초나 모리무라 세이치와 같은 사회파 추리물이 많이 출판된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1970년대 출판된 일본 추리소설의 총수가 75권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절반 이상이 마쓰모토 세이초의 작품이므로 그 인기가 얼마나 높았던 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표1>로부터 1975년을 경계점으로 일본 추리소설의 간행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는 생각

23) 세계추리문학의 전집으로 먼저 에도가와 란포의 「음수(陰獸)」와 「고도(孤島)의 마인」을 수록한 하서출판사의 『세계추리문학전집7』(강용준역, 1974)이 있다. 또 같은 출판사의 모리무라 세이치작 「고층의 사각(高層の死角)」을 수록한 『세계추리문학전집19』(안승발역, 1974)가 있다. 그리고 박영사에서 출판하고 한국미스터리클럽이 번역 및 편집한 『세계추리명작선』(이가형외역, 1974)이 있다. 이 명작선은 총 9편의 단편을 싣고 있으며 이가형이 번역한 란포의 「D언덕의 살인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서구의 추리소설(코넌 도일, 크리스티, 시므농 등의 작품)을 싣고 있다. 마쓰모토 세이초의 작품모음집은 삼한문화사의 『대남』(총10권, 문호역, 1976)으로 단편뿐만 아니라 『제로의 초점』이나 『점과 선』과 같은 장편도 포함하고 있다. 『대남』은 그 후 1978년에 『인간소설 대남』(총10권)이란 제목으로 양우당이란 출판사로부터 중복출판이 이루어진다. 동 출판사는 1982년에 4권을 줄여 총6권으로 다시 『인간소설 대남』을 출간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과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체제였다.[24] 이러한 유신체제하에 추리소설의 붐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되는 사실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표1〉 1970년대 작가(상위5명)의 연도별 작품권수

작가명	총수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마쓰모토 세이초	38					5	3	15	2	11	2
모리무라 세이치	14					1	2	1	5	2	3
에도가와 란포	4					1			2	1	
고마쓰 사쿄	3			1	2						
도가와 마사코	2			1	1						

김창남(1995)에서는, 1970년대의 유신체제를 '향락주의와 엄숙주의의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대중문화는 '상업주의'와 '향락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유신체제는 "오히려 엄숙주의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신체제하, "대중문화에 대한 권력의 간섭과 통제는 대부분 향락주의를 배격하고 엄숙주의

24) 최애영(2011) 「유신체제하의 자기검열과 균열의 징후」『대중서사』, p.468. "1974년 1월의 긴급조치 제1호에서 이듬해 5월의 제9호로 이어진 일련의 폭력적 통제수단의 지속적인 발동으로 말미암아, 이후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기까지 한국 국민은 생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억압에 짓눌려, '자기검열'속으로 움츠린 채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25]위와 같은 대중문화의 상업성은 박정희 정권하의 경제정책과 맞물려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기존의 경공업체제로부터 벗어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한국도 점점 2,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져갔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도 점점 첨예해져 갔다. 산업이 고도화됨과 동시에 라디오와 TV의 보급도 점점 확산되어 갔다. 이는 1970년대의 한국사회에 있어서 "대중문화의 생산 · 유통 · 소비의 구조적 기반이 완성되었음을 의미"[26]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비중심의 대중문화는 출판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대한출판문화협회(1987)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지적이 있다.

> 우리가 본격적인 독서라 하면, 동서의 文豪의 소설을 읽는다거나 사상서 · 철학서에 친숙함을 말했었다. 대중잡지나 주간지 따위를 애독하는 것은 독서가 아니했다. (중략)그런데 이와 같은 독서 · 교양의 패턴이 1975년도를 경계점으로 하여 변화하였다. 먼저 그 변화는, 독서에 있어서의 '輕裝化'가 대규모로 일기 시작한 점이다. 즉, 1974년경에는 이미 전집류의 퇴조현상이 현저해졌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文庫本의 급격한 성장이 이를 뒷받침한다.[27]

즉 전집류로 대표되는 순문학작가, 문호의 작품과 더불어 대중소설을 읽는 행위도 독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러한 대중의 수요가 문고본 및 단행본의 대량출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976년에 들어서 더욱 출판시장이 활성화되어 총 출판종수가 1만종을 돌파하게 된다.[28] 특히 삼중당은 <미스테리 명작 시리즈>를 기획하여 다카기 아키미쓰(高木彬光)의 『파계재판(破戒裁判)』(미스테리명작19, 장백일역, 1978), 미나카미 스또무(水上勉)의 『죽음의 유역』(미스테리명작20, 김상일역, 1978), 구로이와 주고의 『대낮의 함정』(미스테리명작29, 권일송역, 1979), 모리무라 세이치의 『야성의 증명』(미스테리명작30, 길정우역, 1979)등 의 일본 추리소설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의 추리소설 시리즈 기획은 매

25) 김창남(1995) 「'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역사비평』제32집, 역사비평사, pp.127-128.
26) 위의 책, p.123.
27) 대한출판문화협회(1987), 앞의 책, p.179.
28) 위의 책, p.183. "1975년보다 76년도에는 종수에서 무려 158%, 부수에선 303%까지 신장한 기록을 세웠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우 유행하여 삼중당 이외에도 하서출판사의 <세계추리문학전집>, <하서추리신서>, 지소림문고사의 <지소림 추리문고>, 풍림출판사의 <풍림명작추리소설시리즈> 등이 있었다. 위의 시리즈를 통하여 영미추리소설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추리소설을 한국 독자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29]

2.3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 출판시장은 1970년대에 비교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1980년에 종수 2만을 넘게 되었고[30] 1983년도에는 종수로 3만종을 부수로 1억부를 돌파하게 되었다. 일본 추리소설의 경우도 그 전과 비교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70년대의 총 75권에 비해 약 2배 이상이 증가하여 80년대에는 총 155권이 집계되고 있다. 출판권수는 <그래프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8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6년부터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2>의 작가별 권수를 보면 70년대와 동일하게 마쓰모토 세이초와 모리무라 세이치가 가장 많은 권수를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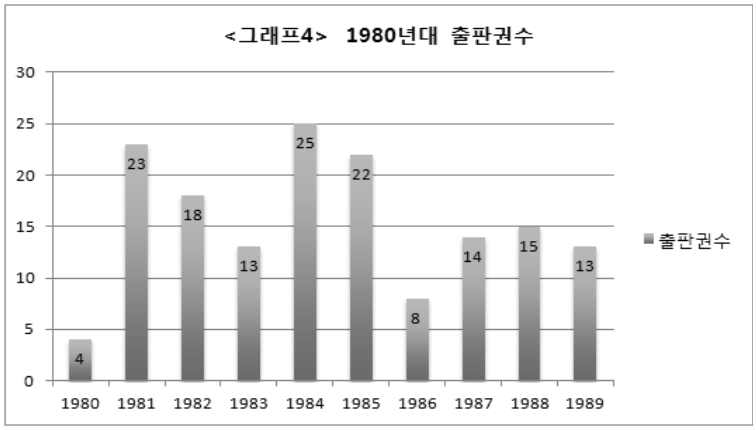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1970년대부터 유행하였던 기업소설의 기획전집이 추리소설과 연결되어 다수 출판된 점을 들 수 있다. 1981년 청조사에서 간행된『대승부』(전14권)의 경우, 기업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正軌)의『모반지대(謀叛地帶)』, 시로야마 사부로(城山三郎)의『맹인중역(盲人重役)』, 시미즈 잇코(清水一行)의『대악지원(大惡志願)』과 더불어 마쓰모토 세이초의 작품 4권과 구로이와 주고의 작품 7권이 포함되어 있다.『대승부』는 1982년에 청문출판사에서 중복출판된다. 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작품집으로『대인간경영』(신일출판사, 1981)을 들 수 있다. 위 작품집은 모리무라 세이치와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의 공저로 되어있으며 전 20권중 4권이 모리무라의 작품집이다.

---

29) 지소림문고사는 마쓰모토 세이초의『점과 선』(지소림 추리문고10, 신상철역, 1976) 및『고교생살인사건』(지소림추리문고7, 이규직역, 1976) 등을 풍림출판사는 모리무라 세이치의『야망의 25시』(풍림명작추리소설시리즈22, 백야성역, 1979) 및『재벌설계자』(풍림명작추리소설시리즈27, 이영조역, 1979) 등의 일본추리소설을 출판하였다.

30) 종수의 대부분은 각 학교의 부교재 또는 입시 준비용 참고서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1987), 앞의 책, p.18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2〉 1980년대 작가(상위5명)의 연도별 작품권수

작가명	총수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마쓰모토 세이초	45	2	9	10		7	5		10	1	1
모리무라 세이치	27	1	5		3	8	4	4		1	1
구로이와 주고	24		7	7	5	1	1			1	2
니시무라 주코	8				1	3	1				3
사사자와 사호	8					2				6	

이는 1970년도에 유행되어 기획되었던 일본기업소설의 전집류 출판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31] 1960, 70년도에 유행되어 출판되었던 일본문학 전집류는 소위 일본의 순문학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인기를 누렸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대중소설, 특히 기업소설이 인기를 얻게 되자 기업소설 전집의 기획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소설 전집의 유행이 추리소설 전집의 유행으로 이어졌다고 추론된다. 이러한 번역문학의 전집류 기획은 1985년을 기점으

31) 1970년도에 많이 팔렸던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경우 단행본도 많이 출판되었지만 그것과 더불어 많은 전집이 출판되었다. 예를 들면 전 46권으로 평화문화사에서 출판된『인간경영』이 그러하다. 가지야마의 작품집인『인간경영』은 동서문화사에서 전 10권으로 그리고 태호출판사에서 전 15권, 문교사에서『기업소설 인간경영』으로 중복출판된다. 이뿐만 아니라 시바타 렌자부로(柴田錬三郎)등과의 공저로 출판된『경영대망』(전20권, 선경도서공사, 1975),『대물인간』(전16권, 한음사, 1976)등이 있다. 또한 위의 전집류들도 다른 출판사에 의한 중복출판이 이루어졌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 급격하게 줄기 시작한다. 이는 “너무도 많은 전집류와 문고류가 역간되어 그 공급된 수가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다.”[32]

2.3.1 대형서점의 등장과 사회고발소설의 인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80년대는 출판시장이 그 전과 비교해 많은 성장을 하였다. 그것은 출판종수와 부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서점계의 괄목상대한 성장으로도 귀결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비교하여 1980년대의 큰 변화중 하나가 바로 대형서점의 등장이었다. 종로서적[33]과 교보문고[34]의 등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대형서점이 도입한 ‘완전 개가식 도서진열’이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로써 도서진열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간 서적이 진열되지도 못한 채 출판사로 반품되는 등의 출판계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다.[35] 또한 대형서점의 출현으로 종래의 중소서점의 책장에 진열되지 못했던 추리소설을 포함한 각종 다양한 장르문학의 서적들을 고객들이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36] 이러한 대형서점은 점점 늘어나 1988년이 되면 100평 이상의 중・대형 서점이 전국에 걸쳐 3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위와 같은 대형서점의 등장과 더불어 1980년대 말부터 전 가정에 보편적으로 컬러TV가 보급되면서 한국인의 문화생활 수준은 크게 개선되었다.[37] 하지만 1980년대는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였다. 1980년 5월 31일에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제5공화국은 정권의 기반을 굳히려고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더욱 사회를 통제하였다.[38]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32) 김병철(1998), 앞의 책, p.763.
33) 1979년 10월 1일 종로2가의 종로서적은 종래의 300평에서 700평으로 서점을 확장하였다. 동서점은 1985년 10월에 다시 1080평으로 확장하여 한국최대의 서점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1987), 앞의 책, p.186.
34) 1981년 6월 광화문 네거리의 교보빌딩 지하 1층에 개점한 교보문고는 당시 매장면적 900평의 현대식 서점으로 완전 개가식 도서진열과 고객들의 가방보관소, 휴식용의자, 스낵 코너, 문구점 등을 함께 갖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념의 서점 공간을 창출하여 장안의 화제를 집중시켰다. 이중한외(2001)『우리 출판 100년』현암사, p.191.
35) 위의 책, p.194.
36) 대한출판문화협회(1987), 앞의 책, p.186.
37) 교과서포럼(2008)『한국 현대사』기파랑, p.130.
38) 역사학연구소(2011)『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서해문집, p.42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한 '제3자 개입 금지법'이 그러하며 '사회보안법', '사회치안법'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민족민중운동이 고양되어 다양한 노동운동, 학생운동, 재야운동이 일어났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 대중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고발소설이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산업사회의 소외집단을 그린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산업사회의 권위주의를 고발하는 김홍신의 『인간시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의적의 이야기를 담은 황석영의 『장길산』도 많은 인기를 누렸다. 특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무려 13만 권이나 팔려 그 때까지 단행본으로서는 최고의 판매기록을 올렸다.[39] 1980년대에 출판된 일본 추리소설 작가 중에서 가장 많은 권수를 자랑하는 마쓰모토 세이초나 모리무라 세이치, 구로이와 주고와 같은 사회파 추리물의 경우도 위와 같은 맥락 속에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책의 표지에 적힌 광고 문구를 봐도 여실히 알 수 있다. 구로이와 주고작 『먹느냐 먹히느냐』(진웅기역, 금문당, 1983)의 표지는 '장편고발소설'이란 문구가 표지 제일 위에 크게 적혀있다. 마쓰모토작『아무도 대권을 잡지 못했다』(전3권중 제3권, 김남환역, 청맥, 1987)의 표지에는 '이 책을 읽지 않고는 못 배길 이유 8개 항목'이 나타나 있다. 그 중에 "추리소설이지만 추리소설의 형식을 뛰어넘은 고급소설이다"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리고 "정치가 부패했을 때 치자(治者)의 칼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 준다"와 같은 대단히 흥미로운 문구가 보인다. 또한 1977년 출판된 이래 9번의 중복출판이 이루어진 『인간의 증명』[40]의 작가 모리무라 세이치의 경우, 추리소설 이외에도 731부대를 고발한 논픽션작품인 『악마의 포식』[41]이 1980년대에만 4번 중복출판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의 독자들이 사회고발적 소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

39) 대한출판문화협회, 앞의 책, p.182.

40) 모리무라 세이치의 장편소설로 1976년 가도카와 서점(角川書店)으로부터 처음 출판되었다. 한국의 경우 1977년 진문출판사로부터 『인간의 증명(人間の証明)』(홍윤기역)이란 제목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41) 1981년에 일본공산당의 기관지 「적기」에 연재된 후 동년 고분샤(光文社)로부터 단행본이 출판되었다. 국내에는 1982년 고려문화사로부터 『악마의 포식(悪魔の飽食)』(고려문화사 편집부역)이란 제목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그리고 동년에 타출판사로부터 3번 중복출판이 이루어졌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3.2 1960~80년대 마쓰모토 세이초의 인기와 그 원인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다른 추리소설 작가와 비교하여 마쓰모토 세이초의 인기는 독보적이었으며 그의 작품은 늘 일본 추리소설 출판권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1970년대는 일본 추리소설의 반수 이상이 마쓰모토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그의 작품은 1961년『제로의 초점』이 처음 자유사로부터 출판된 이래 꾸준히 사랑을 받아 왔다. 1967년 제일문화사로부터 처음 출판된『점과 선』은 이후 9번 중복 출판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인기를 누린 마쓰모토의 작품『제로의 초점』은 4번,『소설동경제국대학』은 5번,『눈의 벽』은 2번,『파도의 탑』은 1번 중복출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단행본 이외에도『大男』(전10권, 문호역, 삼한문화사, 1976)과 같은 개인전집이 기획되었으며 이는 이후 양우당이란 출판사로부터 두 번 중복출판이 행해졌다. 왜 이렇게 마쓰모토 세이초의 작품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게 된 것일까.

위의 모든 소설들은 사회의 암적인 부분, 그리고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음모를 그려내고 있다.『점과 선』은 두 남녀의 자살로부터 시작되어 공무원 사회의 비리로 연결되어지고 있다.『제로의 초점』은 미군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했던 여성을 모티브로 전후사회의 혼란상을 담고 있다. 또한『소설동경제국대학』은 일본 근대 국가의 암부를,『눈의 벽』이 회사내 비리 등의 현대사회의 암부를 그렸다면,『파도의 탑』또한 정경유착과 같은 병폐를 소재로 하고 있다. 즉 마쓰모토의 작품들은 사건의 근원이 되는 사회의 암부를 파헤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추리소설이 트릭과 그것이 풀리는 과정을 중요시했다면 마쓰모토는 그것에 반하여 사건의 동기를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42] 그리고 그의 추리소설은 기존 애호가의 전유물이었던 추리소설에 결핍되어 있던 리얼리티를 보완하여 실제 있을법한 등장인물과 독자의 주변에 존재할 것 같은 공간설정으로 독자들을 끌어당겼던 것이다.[43]

문학평론가 정창범은 1966년『동아일보』의「推理小說과 우리의 與件-李佳炯氏의『미스테리에의 招待』에 덧붙여」[44]란 기사에서, 이가형이 주장하는 "요

42) 한기연(1992)「松本清張 推理小説의 特徵」『일본연구』제7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163.
43) 森村誠一(2006)「昭和と共生した作家-無冠の帝王の見本」『別冊太陽 松本清張-昭和と生きた、最後の文豪』平凡社, p.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컨대 민주주의가 年淺한 한국에서는 「미스테리」文學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45]라는 설을 비판하며, "推理小說의 주요 素材가 犯罪나 특수事件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야말로 推理小說의 溫床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 및 정경유착과 같이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점을 가진 우리나라에도 멀지 않아 추리소설 붐이 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논을 맺고 있다.

> 그러나 한편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스테리 붐」이 일어나더라도 단순히 讀者의 想像力을 자극시키는데 그치는 娛樂的인 것이 아니라, 社會的인 넓은 視野에서 하나의 惡을 폭로하는 社會小說로서의 의미를 지녀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1970년대에 추리소설 붐이 일어났으며 그 붐은 1980년대까지 이어져 갔다. 그것은 국내에 수용된 일본 추리소설에도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출판된 일본 추리소설의 대부분은 마쓰모토 세이초, 모리무라 세이치, 구로이와 주고 등의 사회파 추리물이었다. 즉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사회의 안정과 더불어 추리소설이 정착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혼란과 함께 붐을 일으켰으며 특히 일본 추리소설의 경우 국내의 전반적 혼돈상황과 근접한 소재를 다룬 사회파 추리물이 인기를 얻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 마쓰모토의 수많은 단행본과 전집류의 출판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46] 즉 당시 한국의 독자들인 놓인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일상생활 속

---

44) 정창범(1966.2.22) 「推理小說과 우리의 与件-李佳炯氏의 『미스테리에의 招待』에 덧붙여」『동아일보』 5면.

45) 이가형(1966.2.17) 「『미스테리』에의 招待」『동아일보』 5면.
「미스테리에의 招待」란, 당시 중앙대 영문과 교수였던 이가형이 동아일보에 개재했던 평론으로 여기서 그는 한국에 추리소설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민주주의의 존재를 들고 있다. 후에 이가형은 1972년 한국미스터리클럽을 결성하여 초대 회장을 맡게 된다.

46) 마쓰모토 세이초에 대한 인기는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의 탄생 100주년으로 2009년 일본에서는 마쓰모토 세이초와 관련된 많은 행사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다양한 선집류가 기획되어 출판되었다. 한국에서도 미야베 미유키(宮部みゆき)가 편집한 『마쓰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이규원역, 2009)이 전3권으로 북스피어로부터 '거장의 출발점부터 종착점까지,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는 대작업'이란 광고와 함께 출판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까이에 사회적 악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 상황과 연동되어 마쓰모토의 사회파 추리물이 많이 읽혔던 것이다.

2.4 1990년대-대중소비사회와 아카가와 지로

1990년대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총 출판권수는 181권으로 <그래프5>를 보면 1990년부터 95년에 걸쳐서는 순조롭게 오름세에 있다. 하지만 1996년에는 출판계를 덮친 불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47] 그 원인에는 도서대여점들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다음해인 1997년에는 출판계가 값싼 페이퍼백(소프트 커버)을 출판하는 등의 가격인하안을 내어 일시적인 증가세에 있으나[48] 그 후 IMF사태의 영향으로 출판량이 격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91년과 97, 98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일본 미스터리 소설이 비교적 많은 권수로 출판된 것이 확인된다. 총 출판권수로 생각해 볼 경우 181권으로 70년대의 155권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수용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일본 소설 붐이다. 1989년에 출판된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상실의 시대』[49]는 1960년대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의 『빙점』이후 두 번째 일본 소설 붐을 일으켰다. 하루키는 국내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이라는 양면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후 한국 문단에서는 일본문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50] 또 1995년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으면서 한국사회는 대중소비시대에 들어섰다. 1980년대까지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반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51] 대중소비시대의 흐름 속에 일어난 일본 소설 붐으로 인하여 대중적인 일

47) 1995년은 방송, 영상문화의 발달로 독서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업계는 타격을 받았다. 출판량을 줄이는 등 경영을 축소하였지만 출판사도 차례차례 경영난에 빠진다. 김이금(1998)「1990년대 번역소설 베스트셀러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논문,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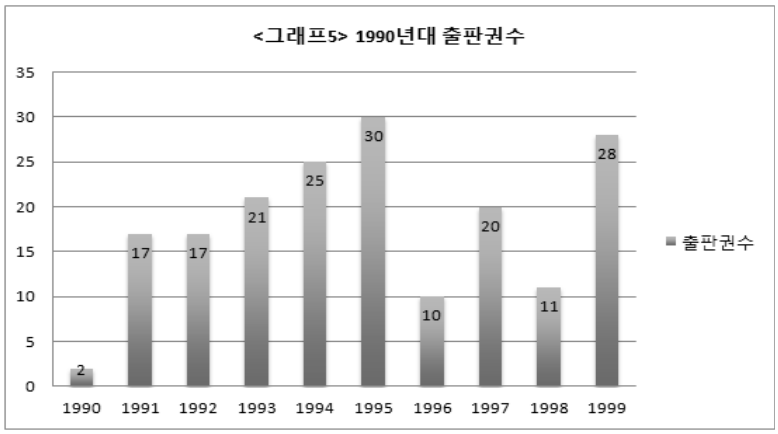
48)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판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산단가와 공급단가가 낮은 소프트 커버(페이퍼 백)로 서적을 출간하는 기획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이인우(1996) 「값싼 '페이퍼백' 출간 출판계 불황탈출 모색」『한겨레신문』12면, 1996.3.6.

49) 『상실의 시대』는 1995, 96년 베스트셀러에 각각 7위, 6위에 올라 있다. 김이금(1998), 앞의 책, pp.38-39.

50) 문연주(2008.6), 앞의 책, p.20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본 미스터리 소설이 대대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추리장르를 향한 관심은 일본의 것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유럽 및 미국의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그 중에서도 애거서 크리스티의 인기는 단연히 높았다.[52] 소설 뿐만 아니라 미국 CBS에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방송된 인기 추리 드라마『제시카의 추리극장』은 국내에서도 80년대부터 90년대 전반까지 인기를 얻으며 방영되었고 1995년에는 SBS에서 방영한『李가사 크리스티』라는 추리 드라마도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수용에 관한 첫 번째 특징으로 먼저 '신세대'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이 세대는 1990년대에 장르소설의 인기를 떠받치는 독자층으로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회 · 경제 · 문화 경험을 가진 새로운 세대였다.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본격적인 첫 영상세대였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컬러TV나 비디오로 에니메이션과 드라마를 즐겨보며 자랐고 게임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에 늘 둘러싸여 있던 그들은 정보통신 혁명으로 영상매체 중심의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세대였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구매력이었다. 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신세대는 소비산업과 문화산업의 중요한 타겟이었던 것이다.[53]

51) 현광호(2010)『세계화시대의 한국현대사』선인, p.297.
52) 박광규(2011), 앞의 책, pp.30-3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두 번째로 도서대여점의 출현 및 증가가 중요하다. 1993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도서대여점은 1994년에는 6천, 1995년에는 7천, 1996년에는 8천 7백 곳까지 증가하였다.[54] 경제 불황기에 있어서 도서대여점 출현은 출판계에 큰 타격을 끼치며 질이 낮은 독서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비판도 받았으나, 도서대여점의 출현은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사람들의 잠재적인 독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55] 이용자의 75.4% 이상이 아이들과 중고등학생이었고,[56] 이들이 주로 대여한 도서는 베스트셀러 소설이었으며 특히 추리·공상과학 소설이 많았다.[57] 그리하여 대여점의 주된 이용자층인 중고등학생에게 추리·공상과학 소설이 확산되어 미스터리 소설의 독자층의 저변 또한 기존에 비해 확대되었다.

세 번째로 일본의 SF·환타지 및 호러물이 많이 번역된 것도 1990년대의 큰 특징이다. 특히 요괴퇴치사가 등장하는 유메마쿠라 바쿠(夢枕獏)의 『마수사냥』(전3권, 임관철역, 백상미디어)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연속으로 간행되며 인기를 누렸다. 또 1998년 스즈키 고지(鈴木光司)의 『링』(전3권, 윤덕주역, 씨엔씨미디어, 1998-1999)이 간행되자 다음해 99년에는 한일 합작으로 영화『링』이 제작되어 국내에서 관객 17만 명을 동원하며 호러 붐을 일으켰다.[58] 이와 같이 1990년대에는 도서대여점의 증가와 미스터리 소설 붐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더욱 두터운 미스터리 소설의 독자층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단편집의 기획출판이다. 1990년대 출판계는 경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팔리는 책을 기획해야 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러 가지 기획출판을 시도하였고, 그중 하나가 단편소설집의 간행이었다. 일본 순문학의 경우 『일본 현대소설 8선』(우석, 1993), 『일본 대표단편선』(전3권, 고려원, 1996)

53) 김이금(1998), 앞의 책, p.63.
54) 위의 책, p.85.
55) 이종현(1996) 「우리나라 도서대여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논문, p.61.
56) 위의 책, p.79.
57) 주로 대여된 도서의 내역은 베스트셀러 소설(50.8%), 만화(26.9), 잡지(14.6%)와 같다. 영화 상영의 시너지 효과로 원작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양들의 침묵』(이윤기역, 고려원, 1991), 『펠리컨 브리프』(정영목역, 시공사, 1992), 『쥬라기 공원』(전2권, 정영목역, 김영사, 1991)이 많이 대여되었다. 위의 책, p.37, 김이금(1998), 앞의 책, pp.43-44.
58) 김주영(1999.6.18) 「한일합작 공포영화 '링' 전국 17만 관객동원」『매일경제』33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미스터리 소설의 경우 『일본 서스펜스걸작선』(고려원미디어, 1993), 『J미스터리 걸작선』(전3권, 태동출판사, 1999), 『베스트 미스터리 2000』(전2권, 태동출판사, 1999)과 같은 단편집들이 출판되었다.

〈표3〉 1990년대 작가(상위5명)의 연도별 작품권수

작가명	총수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아카가와 지로	19				4		1	2	7	4	1
모리무라 세이이치	16		1	3	3	1	1				1
유메마쿠라 바쿠	15					6	6	3			
마쓰모토 세이쵸	8			3	2	1	1				1
사사자와 사호	7				2	2	2				1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수용에 관한 특징으로 아카가와 지로[59]와 같은 대중적 추리작가의 대두를 들 수 있다. <표3>을 보면 1980년대까지 인기가 있었던 마쓰모토 세이초나 모리무라 세이치가 1995년도까지 꾸준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전에 각광을 받지 못했던 아카가와 지로나 유메마쿠라 바쿠의 작품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고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80년대까지 늘 수위를 지키던 마쓰모토 세이초가 4위로 밀리고 아카가와 지로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1990년대에는 마쓰모토 세이초 등의 사회파 추리물과 아카가와 지로 등에 의한 대중적 추리물의 인기가 뒤바뀌는 패러다임의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아카가와의 작품은 독특한 방법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에 의해 인기를 얻은 점도 있지만 기승전결이 분명한 점과 명쾌하고 빠른 이야기 전개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고양이 홈즈(三毛猫ホームズ), 고소공포증과 여성공

59) 아카가와 지로는 1978년 '삼색 고양이 추리 시리즈(三毛猫ホームズの推理シリーズ)'로 인기를 얻으며 일약 유명작가가 되었다. 라이트 미스터리의 기수라고도 불리는 그는 현재까지 500편의 저작이 있을 정도 '다작(多作)'으로 유명하며 명탐정의 복권을 주장하는 요코미조 세이시(横溝正史)와 함께 수수께끼 풀이중심의 미스터리를 부흥시켜 왔다. 1993년 일본 국내 조사에서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에 1위인 마쓰모토 세이초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佐藤隆信(2000)『日本ミステリー事典』新潮社, p.12, 이동주(1993.2.6)「日本국민은 "독서狂" 작년 1人23권꼴 구입」『경향신문』9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포증을 가진 형사 가타야마 요시타로(片山義太郎)와 같이 기존의 추리소설에는 보이지 않는 코믹한 등장인물이 많다는 점도 인기를 얻은 비결이었다. 이는 그의 작품이 일본에서 '여학생 붐'이 일어났던 1980년대에 일본의 여성잡지에 연재되었던 소설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60]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버블기라고 불리는 호경기의 물결을 타고 소비문화의 중심을 이루던 여성을 겨냥하여 다양한 여성잡지가 발간되었고 가벼운 읽을거리를 주로 거기에 담았다. 그리고 그곳에 아카가와 지로의 작품이나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ばなな), 하야시 마리코(林真理子) 등의 작품이 있었던 것이다.

대중소비시대를 표방하는 한국의 1990년대에 아카가와 지로의 많은 작품이 출판된 것도 위와 같은 맥락 속에 이해될 수 있다. 1980년대까지 인기를 얻었던 사회파 추리물보다 가볍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추리물을 독자들이 원했던 것이다. 또한 불황으로 고전하던 출판계도 가벼운 읽을거리로 그것을 탈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카가와 지로의 유행은 길게 가지 못하고 1990년대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결국 끝나고 만다.[61] 이는 1990년대 그의 작품이 19권이나 출판된 것에 비해 2000년대는 단 3권으로 준 것으로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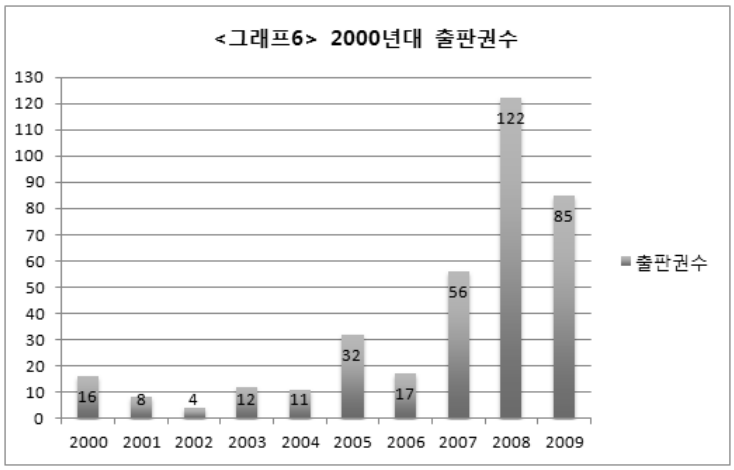
2.5 2000년대-스타급 작가의 등장과 출판사간의 경쟁출판

앞서 <그래프1>에서 2000년대 출판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권수는 총 363권으로 80년대 155권, 90년대 181권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2000년대 일본 미스터리 소설 출판량의 급격한 증가는 <그래프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후반기에 급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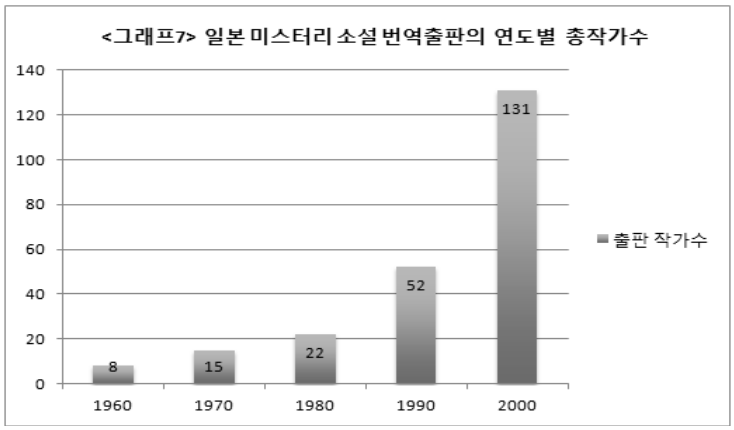
---

60) 일본의 여성잡지 『cobalt』와 같은 10대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주로 연재되었다.
61) 박광규(2011), 앞의 책, pp.30-31.
62) 2007년에는 일본 미스터리 소설을 비롯하여 국내창작물과 영어권, 비영어권의 번역물을 모두 포함하여 총 2백종을 넘어섰으며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친 2009년에도 전체 추리소설 출판량이 거의 3백종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어별로 살펴보면 영어권 작품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별로 나눈다면 일본 미스터리 소설이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한국추리작가협회(2009) 「2009년 추리소설 결산」『계간 미스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출판량에도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기의 일본 미스터리 소설 출판량은 90년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2000년대 후반기에 보이는 일본 미스터리 소설 국내 수용의 급격한 증가는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한편 <그래프7>을 보면 2000년대 들어 국내에 소개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작가수도 80년대 22명, 90년대 52명에서 2000년대 총 131명으로 증가한 출판권수에 비례하며 큰 폭으로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제26호, 화남출판사, p.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006년까지 지속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저조한 번역출판 양상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크게 무관하지 않았다. 21세기 한국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도에 현대·대우사태 및 각종 경제비리 사건을 연이어 겪으며 경기불황, 대량감원, 사상 최고의 실업률 등 '제2의 IMF'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불황은 2003년의 카드대란 사태에 따른 자기파산자의 증가, 2006년의 신빈곤층(Working Poor)의 등장, 2007년의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2000년도에 전자책과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면서 국내의 출판시장은 혹독한 불황을 맞았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 등 스타급 작가들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호황을 계기로 뒤바뀌게 된다. <표4>와 같이 2000년대에는 새로운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와 미야베 미유키(宮部みゆき), 온다 리쿠(恩田陸) 등을 들 수 있다.

〈표4〉 2000년대 작가(상위5명)의 연도별 작품권수

작가명	총수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히가시노 게이고	34	3			2		4	1	6	9	9
미야베 미유키	29	1					2	6	8	8	4
호시 신이치[63]	27								5	22	
온다 리쿠	14							2	2	7	3
니시오 이신	10						1		3	2	4

이중에서도 2000년대 총 34권의 작품이 출판되며 가장 많은 작품이 번역출판된 히가시노는 『비밀』(전2권, 이선희역, 창해, 1999)로 등장한 뒤 『백야행』(정태원역, 태동출판사, 2000)과 『용의자 X의 헌신』(양억관역, 현대문학, 2006)[64]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국내에서 추리소설 작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게 되었다. 그의 작품이 출판권수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그만의 독특한 이야기 구성과 주제의식을 들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트릭을 푸는

63) 호시 신이치는 일본의 대표적 SF작가로 90년대부터 다수가 번역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8년도에 '호시 신이치의 플라시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전집류가 출간되었다.
64) 제6회 본격 미스터리 수상작이며 동시에 제134회 나오키상 수상작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쾌감에 더해 다양한 인간군상을 등장시킴으로써 독자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끌어내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용의자 X의 헌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작품은 일본 추리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잔혹함이나 엽기, 호러가 아닌 '사랑'과 '헌신'이라는 고전적이며 낭만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그는 미스터리적 요소와 대중적인 소재를 조화시켜 장르소설 독자층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층에 이르기까지 호응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미디어믹스'[65]라고 불리는 광고효과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위에 제시한 그의 3작품 모두 원작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영상화'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66] 특히 『용의자 X의 헌신』은 2006년에 출판된 이래 꾸준히 인기를 끌며 교보문고 선정 3년 연속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2009년에 영화화되었으며 극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원작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영화를 보고 원작소설을 찾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67]

히가시노와 더불어 또 한 명의 스타급 작가인 미야베 미유키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화차』(박영난역, 시아출판, 2000)가 처음이며 2005년에 게임을 소설화한 『이코: 안개의 성』(김현주역, 황매)와 『이유』(이규원역, 청어람미디어)가 출판되는 등 2000년대에 총 29권이 국내에 출판되었다. 특히 『화차』는 무분별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개인 파산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부도와 퇴출이 속출하

65) '미디어믹스'란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TV와 같은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적절하게 혼용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특유의 오래된 영상 제작 시스템이다. 일본에서는 대중적으로 검증받은 소설이나 베스트셀러가 드라마, 영화 등으로 영상화되는 것은 일종의 영상 제작 시스템의 관행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믹스'는 이러한 소설과 만화, 영화, 드라마는 물론 캐릭터 사업 등 여러 산업 간 교류를 일컫는 말로 일본 문화 콘텐츠를 읽어내는 주요 키워드이다. 이러한 일본의 미디어믹스 문화는 21세기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사회구조를 통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문연주(2008), 앞의 책, p.213.

66) 소설 『비밀』은 제52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 장편부문 수상작으로 2002년에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같은 해에 영화로도 소개되었다. 2000년작 『백야행』은 제122회 나오키 상 후보작으로 같은 해 국내에 출판되었고 2004년에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다시 한 번 큰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여 2009년 국내에서 영화로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67) 2009년도에는 『더 리더』, 『슬럼독 밀리어네어』, 『용의자X의 헌신』 등 영화의 원작들이 교보문고 소설부문 베스트셀러 Best10에 들어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던 당시의 한국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받고 있다. 온다 리쿠의 경우 『밤의 피크닉』(권남희역, 북폴리오, 2005)을 비롯하여 『1001초 살인사건: 온다 리쿠 단편소설집』(권영주역, 까멜레옹, 2009)을 포함해 2000년대 모두 14권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위에 제시한 세 명의 스타급 작가는 이미 국내에서 탄탄한 독자층을 형성했으며, 아직 번역되지 않은 작품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국내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68]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히가시노 게이고, 미야베 미유키, 온다 리쿠 등 의 스타급 작가들은 60~80년대 마쓰모토 세이초로 대표되는 사회파 추리물과 90년대 아카가와 지로로 대표되는 대중적 추리물에 이어, 이제는 어떤 특별한 경향의 추리물이 아닌 다양한 경향의 추리물을 내세우며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스터리소설 작가들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렇게 2000년대는 추리라는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영상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문학 장르에서도 다채로운 시도들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2000년대 일본의 스타급 추리소설 작가들의 등장은 출판사간의 무분별한 경쟁출판이라는 문제점도 야기하였다. 스타급 작가들의 선전으로 2007년부터 수많은 출판사들이 내용의 검증은 뒤로한 채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출판계약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까지도 위와 같은 경쟁출판으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출판량은 여전히 많았으나 짧은 기간 내 집중적인 출판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고 출판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또 선인세가 5, 6년 전에 비해 3, 4배 증가하면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출판량은 다소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69] 하지만 이로 인한 2000년대 후반기의 일본 미스터리 소설 붐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던 다양한 작가들이 국내에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미스터리 소설의 저변 확대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에도가와 란포, 요코미조 세이시, 고사카이 후보쿠(小酒井不木)[70] 등의 일본 고전추리소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71] 등의 추리소설까지 출판되었다는 것은

68) 한국추리작가협회(2008) 「2008년 추리소설 결산」『계간 미스터리』제22호, 화남출판사, p.2.
69) 위의 책, p.22.
70) 2000년대에는 에도가와 란포와 요코미조 세이시의 작품이 각 4권씩, 코사카이 후보쿠는 1권이 국내에 출판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사실은 2000년대에 들어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국내 수용 양상이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Ⅲ. 나오며

이상으로 해방 이후 한국에 번역출판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수용양상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 불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를 포함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붐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연결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0년 4월 혁명으로 시작된 첫 번째 일본문학 붐으로 일본 추리소설이 소개된 이래 70년대 추리소설 붐과 세계추리문학 전집류 간행의 유행은 일본 추리소설로도 연결되었고 80년대 사회고발소설의 인기가 마쓰모토 세이초를 포함한 일본 사회파 추리물의 인기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1990년대 '대중소비'라는 문화형태와 도서대여점의 증가가 결부되어 대중적 추리물이 인기를 얻었고 또 그것이 아카가와 지로의 번역출판으로 이어진 점을 고찰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작가와 또 그들의 추리물을 포함한 SF, 호러, 환타지 등의 폭넓은 작품들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위와 같은 경향은 일본내 미스터리소설의 전개와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수용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상 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본 작업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출판계 특히 소설부문은 여전히 일본문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존재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루키의 인기로 인하여 다른 일본작가의 작품들까지 주목받고 출판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미스터리 소설로 한정시켜 생각해 볼 때 그 단초는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

71) 2000년대에 다니자키 준이치로와 사카구치 안고는 각각 1권씩 출판되었다. 다니자키의 경우 단편소설집인 『범죄소설집』(김용기역, 책사랑, 2005)이, 사카구치의 경우 『불연속 살인사건』(유정역, 동서문화사, 2003)이 그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추리소설의 번안이 있었고 일본 추리소설의 수용으로부터 외국 추리소설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한국 추리소설의 장르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 마쓰모토 세이초의 인기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수용과 그 인기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에 걸친 제반사항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먼저 4월 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하야로 일본 추리소설의 첫 번째 정식 번역출판이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또 1960~80년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혼란상과 일본 사회파 추리물의 인기는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생겨난 '신세대'의 새로운 소비 형태는 사회파 추리물을 넘어서 대중적인 추리물의 인기로 이어졌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 발전한 영상매체의 확산 또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이 인기를 얻은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수용과 유행이 한국 출판계와 서점계의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일본문학 전집류의 유행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문학전집류의 기획출판에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전집류에 이어 70년대에는 일본 추리소설을 포함하여 세계추리문학시리즈의 간행으로 이어졌고 80년대에는 대형서점의 등장으로 독자들이 쉽게 추리소설과 같은 장르문학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도서 대여점의 등장과 증가는 출판계와 서점계의 불황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출판 또한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도서대여점의 출현이 미스터리 독자층을 더욱 두텁게 했다는 사실 또한 도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일본 미스터리 작가의 작품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이는 히가시노 게이고 등의 인기로 인하여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수요가 높음을 확인한 출판사들이 무분별한 경쟁출판을 벌인 결과임을 밝혔다.

위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배제하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출판되기 시작한 일본 라이트노벨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라이트노벨에 SF, 환타지 및 호러 서스펜스적인 요소를 가진 작품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행본 및 전집류에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 대상을 한정시켜 일본 추리소설이 소개된 잡지의 존재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또한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차기 연구의 과제로 삼고 싶다.

참고문헌

김내성 지음, 민병덕 엮음(2009)『마인』정암미디어, p.3.

김병철(1998)『한국현대번역문학사 연구』하권, 을유문화사 p.763.

김이금(1998)「1990년대번역소설 베스트셀러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논문, pp.37-85.

김주영(1999.6.18)「한일합작 공포영화 '링' 전국 17만 관객동원」『매일경제』33면.

김창남(1995)「'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역사비평』제32집, 역사비평사, pp.123-128.

교과서포럼(2008)『한국 현대사』기파랑, p.130.

대중서사장르연구회(2011)『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3 추리물』이론과 실천, pp.20-469.

대한출판문화협회(1987)『대한출판문화협회40년사』대한출판문화협회, pp.120-186.

문연주(2008)「일본소설의 국내 번역 출판 현황과 특성에 대한 통사적 고찰」『한국출판학연구』제54집, 한국출판학회, pp.206-213.

박광규(2010)「추리소설 번역의 역사」『한국번역비평학회 2011년도 동계심포지움 학술대회 논문집』한국번역비평학회, pp.28-33.

박병서(1979.12.12)「뿌리내리는 推理文学」『동아일보』5면.

엄판도(1995)「"PC통신과 함께 여름을 시원하게" 여행정보등 특집메뉴 잇단개설」『경향신문』11면, 1995.8.5.

이가형(1966.2.17)「『미스테리』에의 招待」『동아일보』5면.

이동주(1992.8.9)「日社会추리소설작가 마쓰모토 세이초 死亡」『경향신문』21면.

_____(1993.2.6)「日本국민은 "독서狂" 작년 1人23권꼴 구입」『경향신문』9면.

이인우(1996.3.6)「값싼 '페이퍼 백' 출간 출판계 불황탈출 모색」『한겨레신문』12면.

이임자(1998)『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경인문화사, p.136.

이정옥(2001)「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분석」『현대문학이론연구』제1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p.199.

이종현(1996)「우리나라 도서대여점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논문, pp.37-79.

이중한외(2001)『우리 출판 100년』현암사, pp.191-194.

역사학연구소(2011)『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서해문집, p.426.

윤상인외(2008)『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1945-2005』소명출판, pp.9-5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정창범(1966.2.22)「推理小説과 우리의 与件-李佳炯氏의『미스테리에의 招待』에 덧붙여」『동아일보』5면.
최원식·임규찬(2002)『4월혁명과 한국문학』창작과 비평사, pp.10-11.
한국추리작가협회(2007)「2007년 추리소설 결산」『계간 미스터리』제18호, 화남출판사, p.64.
_____(2008)「2008년 추리소설 결산」『계간 미스터리』제22호, 화남출판사, pp.2-22.
_____(2009)「2009년 추리소설 결산」『계간 미스터리』제26호, 화남출판사, p.2.
한기연(1992)「松本清張 推理小説의 特徵」『일본연구』제7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163.
한기호(2007)『21세기 한국인은 무슨책을 읽었나』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pp.104-287.
현광호(2010)『세계화시대의 한국현대사』선인, p.297.
홍순호(1999)「이승만정권의 대일정책과 재일동포 북송문제」『북한연구』제2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p.2.
佐藤隆信(2000)『日本ミステリー事典』新潮社, p.12.
高橋哲雄(1989)『ミステリーの社会学』中央公論社, pp.233-252.
森村誠一(2006)「昭和と共生した作家-無冠の帝王の見本」『別冊太陽 松本清張-昭和と生きた、最後の文豪』平凡社, p.2.
(1962.12.29)「松本清張의 人物」『경향신문』5면.
(1987.7.16)「소설 東京帝国大学」『매일경제』9면.
http://www.mystery.or.jp/riji/index.html (검색일: 2012년 2월 8일)

❖ 투고일 : 2011.12.31
❖ 심사일 : 2012.01.27
❖ 심사완료일 : 2012.0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